

GWANGJU

FOOTBALL CLUB

July 2015 / NO. 03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 지옥의 5,914km 그 끝이 보인다
- 광주에 뿌리내린 베테랑 이종민
- 광주 FC의 환상 케미는 누구?
- 남기일 감독이 말한 세트피스가 강해진 이유는?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07월 01일 (수) 19:30



인천

07월 05일 (일) 18:00



서울

07월 11일 (토) 19:00



울산

07월 25일 (토) 19:00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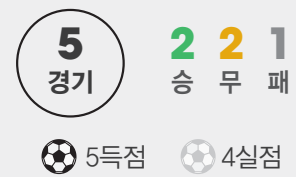
RETURN JUNE, GWANGJU

지난 6월 한 달간의 광주 FC를 되돌아봅니다. 광주는 6월 3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지옥의 '원정 10연전' 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5경기 동안 2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며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6월 초반 3연승을 질주하며 상승한 분위기를 탔으나 6월 중순부터 내리 3경기 무승(2무 1패)에 빠지며 아쉬움 속에 6월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FC 6월 성적

2승 2무 1패 / 5득점 4실점



6월 3일 14R



전남 1 : 2 광주



앞선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원정 10연전을 시작한 광주는 이날 '광주 극장' 을 상영했다. 전반 2분 만에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후반전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후반 22분 여름이 환상적인 대포알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 골을 터뜨린 것에 이어 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김영빈이 역전극의 마침표를 찍는 헤딩 역전 골을 뽑으며 2-1 승리를 따냈다. 올해 전남전에서만 2승을 따낸 '전남 킬러' 광주였다. MOM은 결승 골을 뽑은 김영빈.

6월 7일 15R



수원 0 : 1 광주



광주는 3일 뒤, 수원 삼성 원정 경기를 치렀다. 힘겨운 승부였다. 수원과의 통산 전적에서 승리가 없던 광주였고, 전반 24분 만에 공격수 김호남이 부상당했다. 설상가상 후반 25분 수비수 정준연이 경고누적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까지 물렸다. 하지만 광주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후반 33분 이요름의 코너킥이 수원 양상민의 몸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됐다. 광주는 이 선제골을 결승 골로 만들어 시즌 첫 3연승에 성공했다. MOM은 공격을 지휘한 임선영.

6월 17일 16R



대전 0 : 0 광주



구단 역사상 첫 4연승 도전을 위해 광주는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미 3월 첫 번째 맞대결에서 2-0 완승을 한 기억이 있어 자신감은 넘쳤다. 또, 10일 동안 휴식을 취했기에 선수들의 체력도 문제없었다. 하지만 광주는 점유율에서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다. 송승민이 여러 차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를 위협했으나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광주는 구단 역사를 새로 쓸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는 송승민.



6월 20일 17R



성남 1 : 1 광주



3일 만에 경기가 바로 치러졌다. 광주는 성남으로 이동했다. 이날 경기는 공중파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 높았다. 어김없이 점유율을 잡으며 패스로 경기를 풀 광주였다. 전반 27분 송승민이 선제골을 뽑았다. 송승민의 리그 데뷔골이었다. 후반전 광주는 성남 공세에 밀리며 주도권을 내줬다. 골키퍼 권정혁의 선방이 나오며 무사히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5분을 버티지 못했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경기를 마감했다.

6월 27일 18R



포항 2 : 1 광주



전반전 초반의 집중력 부족이 아쉬웠던 경기였다. 광주는 전반 8분과 20분, 손준호와 문창진에게 연속 실점하며 리드를 빼앗겼다. 정신을 바짝 차린 광주는 전반 43분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다행히, 후반 21분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영규가 코너킥 상황에서 추격 골을 터뜨리며 포항 스틸야드를 점령했다. 교체 카드를 통해 공격의 불을 지핀 광주는 맹공격을 퍼부었으나 점수를 뒤집진 못했다. 골 결정력 부족과 전반 초반의 집중력 부족이 안타까웠다.

지옥의 5,914km 그 끝이 보인다

광주 FC는 불가피하게 원정 경기만을 치르며 혹독한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7월 개최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 홈 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광주는 지난 6월 3일(수) 14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부터 전국 일주를 시작했다. 10경기 동안 홈 경기 없는 지옥의 원정 10연전이다.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일정이다. 목포축구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광주 선수들은 험난한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 회복 훈련을 거친 뒤, 다시 원정을 떠나는 반복 생활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리그 일정이 평일(수요일)까지 겹쳐 있어 체력적인 문제가 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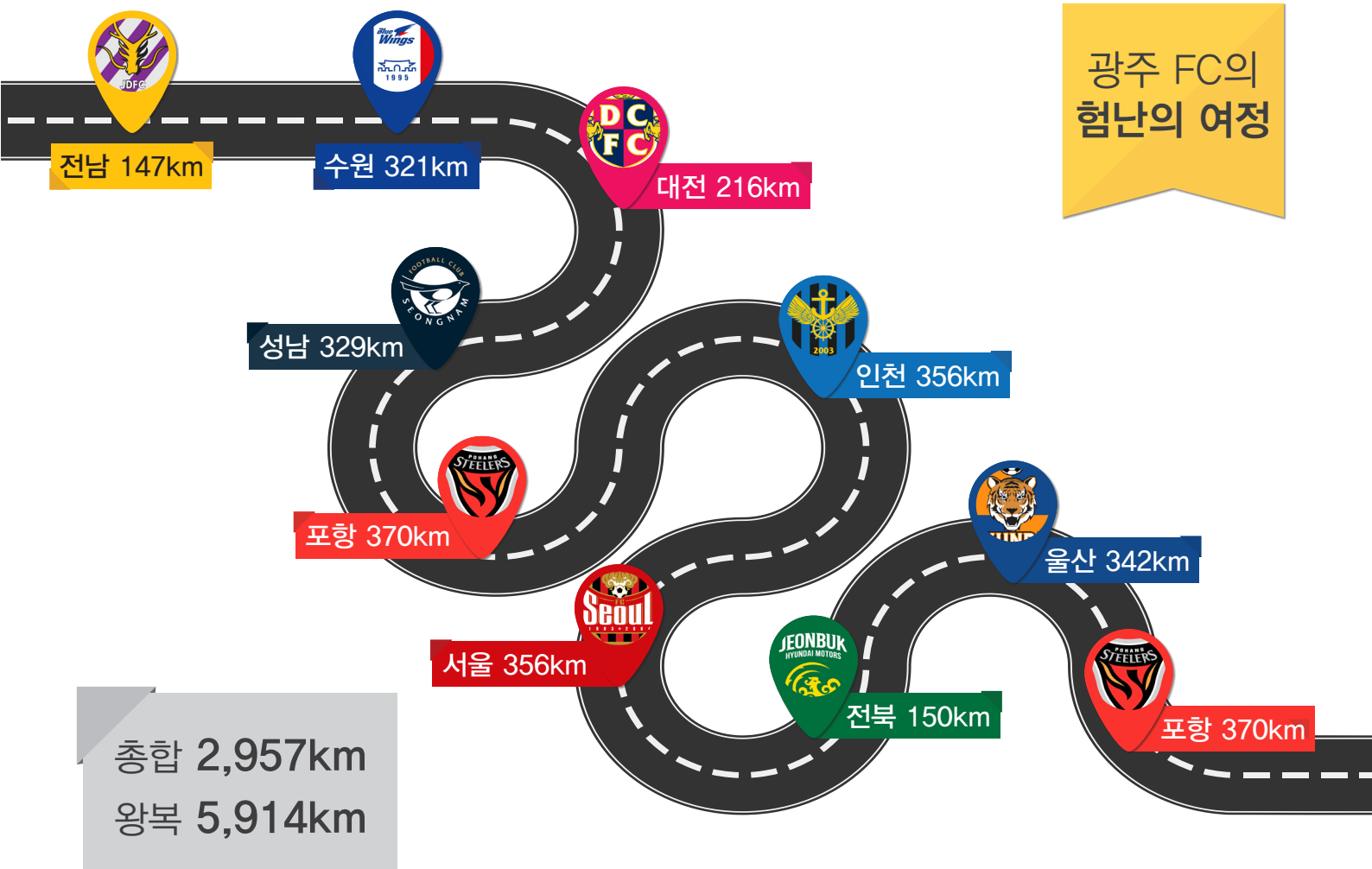
광주의 원정 10연전을 거리로 계산해보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전국 일주나 다름없다. 목포축구센터를 기준으로 10경기 동안 왕복할 거리가 5,914km다. 가장 가까운 원정인 전남도 147km에 달하고 가장 먼 거리인 포항 스틸러스 원정은 370km다. 경기를 치른 이후 선수들은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하기에 경기 종료 후에도 광주는 거리 이동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한다.

이런 살인적인 일정 속에 선수들은 목포로 복귀한 이후 오전에 회복 훈련, 오후엔 링거를 맞으며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주축 선수들이 부상당한 게 아쉬울 수 있으나 혹독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에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광주는 선수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최대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광주 선수들은 꾸준한 경기를 펼치며 중위권을 지키고 있다.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꾸준히 승점 쌓기에 성공하고 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해 상대 팀들을 압박했고, 승리라는 하나 된 목표로 지옥의 원정을 헤쳐나가고 있다.

이제 원정 10연전의 끝이 보이고 있다. 광주는 7월 25일(토) 포항과의 경기를 끝으로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복귀한다. 8월 12일(수) 오후 7시 전남과의 24라운드 홈 경기를 시작으로 반격의 홈 6연전을 치르게 된다.



프로 14년 차, 광주에 뿌리내린 베테랑 이종민



존재 자체만으로도 후배들의 본보기가 되는 선수다. 바로 광주 FC의 수비수 이종민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종민은 K리그에 잔뼈가 굵은 프로 14년 차 베테랑 선수다. 2002년 수원 삼성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울산 현대-FC 서울-상주 상무를 거치며 245경기(20라운드 기준)를 소화했다. 지나온 발자취만 봐도 놀라운 이종민이 광주에 뿌리를 내렸다.

이종민과 광주의 인연은 지난해인 2014년 시작됐다. 수원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난 이종민은 광주 남기일 감독의 강한 러브콜을 받았다. 이종민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데뷔 이후 줄곧 1부리그 무대에서만 뛰어왔고, 당시 광주는 K리그 챌린지에 소속되어 있었다. 어쩌면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종민은 하나만 선택했다. 바로 선수의 본분이다. 경기에 많이 출전하기 위해 광주를 선택했다. 또,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이종민이 광주에 합류하니 자연스레 전력은 강해졌다. 이종민은 오른쪽 측면 수비를 맡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탁월한 공격 가담과 상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수비력이 일품이었다. 특히 이종민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광주는 활력을 얻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날아오는 크로스는 날카

로웠다. 또, 세트피스를 전담하며 오른발 킥 능력도 자랑했다.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이종민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기장 외적에서도 그는 빛났다. 광주의 남기일 감독은 “팀의 고참인 이종민 선수가 술선수범하는 모습이 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니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종민이 광주에 합류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팀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셈이다.

광주의 주장을 맡은 임선영 또한 이종민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바 있다. 임선영은 “내가 지금 주장 완장을 차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장은 (이)종민이 형이다. 종민이 형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형이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종민은 1983년생 만 31세의 적지 않은 나이다.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플레이는 능익고 있다. 다시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어도 손색없을 만한 이종민의 모습이다. 2014년 광주에 합류하자마자 팀의 승격을 이끌었고, 올 시즌에는 20라운드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왜 그가 프로 14년 차 베테랑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했다.

* 20ROUND 기준

헤딩
1
득점

왼발
3
득점

오른발
4
득점

이종민
LEE JONG MIN

No.17

1983.09.01
175cm, 68kg

K리그 통산

245경기 17득점 26도움

이종민은 오른발의 마법사



17

통산
득점



오른발 4골



왼발 3골



헤딩 1골 프리킥 5골 PK 4골

명품 택배 크로스!



26

통산
도움

일반 21도움

프리킥 2도움

코너킥 3도움

그의 발자취



수원 삼성



울산 현대



FC 서울



상주 상무



FC 서울



수원 삼성



광주 FC

이종민은 광주에서 제2의 전성기 보내는 중

그의 전성기

35

경기

5골
3도움

2005년(울산)

24

경기

2골
4도움

2006년(울산)

33

경기

2골
4도움

2007년(울산)

30

경기

3골
6도움

2014년(광주)

20

경기

4골
3도움

2015년(현재)

현재 전성기

광주 FC의 환상 케미는 누구?



케미란 미디어 속 남녀 주인공이 현실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을 상징하는 신조어다. 축구에서도 케미는 있다. 환상의 짝궁 정도가 어울리는 표현인 듯하다. 케미가 있다는 건 선수단 전체가 동반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축구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게 케미의 진정한 힘이다.

물론 광주에도 환상의 짝궁들이 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한 팀과 이제 막 호흡을 맞추고 있는 다른 한 팀이다. 먼저 신생 케미 팀인 송승민과 주현우다. 두 선수 모두 90년대에 태어나 젊은 패기로 뽀뽀 뭉쳐있다. 나이는 더 젊지만, 프로 데뷔를 더 빠르게 한 송승민은 드리블 능력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 90년생의 예비역 병장 주현우는 올해 데뷔한 신인으로 저돌적인 돌파와 적극성이 눈에 띈다.

두 선수가 만나니 광주 공격의 속도가 빨라졌다.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갖춘 선수들이 데다가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게 이들의 주특기다. 특히 공격 진영에서의 무한 스위칭 플레이가 돋보인다. 두 선수의 장점이자 비슷한 점은 공격 모든 포지션에서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광주엔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 송승민과 주현우는 안성남, 파비오 임선영 등과 함께 좌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유기적인 움직임을 펼친다. 한 곳에서만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꿔가며

상대 수비진을 흔든다는 뜻이다.

송승민과 주현우는 지난 20라운드 FC 서울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전반 25분 송승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서울의 공격을 차단하며 역습했다. 빠른 드리블 돌파를 치며 서울 진영으로 들어섰고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렀다. 그리고 주현우는 이 공을 받기 위해 절묘한 위치 선정에 이은 침투로 상대 수비수에게 반칙을 당해 페널티킥을 이끌었다. 두 선수의 합작품이었다.

다른 케미 한 팀은 광주의 잔뼈가 굵은 임선영과 김호남이다. 이미 광주 팬들 뿐만 아니라 축구 팬들이라면 두 선수의 호흡이 좋다는 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2011년 광주의 창단부터 함께해 현재까지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중원에서 임선영이 패스를 뿌리면 김호남이 방점을 찍는다. 이전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나이는 임선영이 한 살 위고 평소에도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이처럼 광주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케미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팀의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케미 이외에도 경쟁을 통해 발전한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도 있다. 분명 광주엔 희소식이다. 시즌은 길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 광주는 밝은 팀 분위기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음과 동시에 경기의 질을 높이고 있다.

남기일 감독이 말한 세트피스가 강해진 이유는?



광주 FC가 세트피스라는 확실한 공격 방법을 손에 쥐었다. 20라운드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광주가 터뜨린 21득점 중에 8골이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코너킥 4골, 프리킥 2골, 페널티킥 2골이다.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광주는 지난 2014시즌 손쉽게 득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세트피스 훈련에 매진했다. 이종민이라는 걸출한 오른발 키퍼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약속한 패턴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올 시즌 광주가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날카로운 왼발 킥을 보유하고 있는 이요뜸에게서 찾을 수 있다. 광주의 남기일 감독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해졌다. 왼발 킥이 날카로운 이요뜸 선수가 합류하며 팀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요뜸은 올해 FC 안양에서 광주로 합류한 신입 선수다. 왼쪽 측면 수비수로 2013년 K리그 챌린지 안양에서 데뷔했다. 데뷔 해에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으나 9월부터 주전 자리를 꿰찼고, 2014년 31경

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다른 팀들이 군침을 흘릴만한 선수로 발전했다. 이요뜸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에 이은 크로스와 슈팅력은 그의 공격적인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광주에서도 이요뜸은 자신의 이름처럼 으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 수비 자리에서 경쟁을 펼치던 정호정이 부상으로 빠지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자신의 장기인 왼발 킥에서도 날카로움을 드러냈다. 이요뜸은 20라운드까지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이 2도움이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14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전 김영빈의 극적인 역전 골과 1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 안영규의 추격 골 모두 이요뜸의 왼발 코너킥에서 터졌다. 또, 15라운드 수원 삼성을 꺾을 때에도 이요뜸의 왼발 코너킥이 상대의 자책골로 연결됐다.

그동안 광주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종민이라는 확실한 오른발 키퍼가 있는 것에 비해 마땅한 왼발 키퍼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이요뜸의 등장으로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세트피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득점 사냥에 나서고 있다.

2015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	 장기봉 수석코치	 기우성 GK코치	 길레미 피지컬 코치	 이준영 주치의	 1 GK 제종현	 21 GK 주정우	 31 GK 권정혁
 3 DF 김영빈	 4 DF 정준연	 6 DF 오도현	 14 DF 이으뜸	 17 DF 이종민	 18 DF 권영호	 20 DF 송성범	 26 DF 안영규
 29 DF 마철준	 33 DF 정호정	 39 DF 조철인	 7 MF 여름	 13 MF 허재녕	 16 MF 송승민	 19 MF 박선홍	 22 MF 조용태
 28 MF 김익신	 30 MF 주현우	 34 MF 안성남	 37 MF 박일권	 40 MF 이찬동	 5 FW 임선영	 10 FW 파비오	 11 FW 김호남
 12 FW 김성현	 36 FW 까시아노						

2015시즌 홈 경기 일정

08월 12일(수) 19:00		전남 드래곤즈	09월 09일(수) 19:00		인천 유나이티드
08월 19일(수) 19:00		대전 시티즌	09월 13일(일) 14:00		부산 아이파크
08월 23일(일) 19:00		제주 유나이티드	09월 23일(수) 19:00		전북 현대
08월 29일(토) 19:00		울산 현대	10월 04일(일) 14:00		수원 삼성

광주FC SNS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2015시즌 광주 FC 후원사: 중흥S-클래스, 호반건설, 광주상공회의소, 보광건설(주), 골드클래스, Hyundai Oilbank, KSPO, 보해양조주식회사, 광주수완병원, KBO, 청연의료재단, 밝은안과21병원, Arbol, 매직콘, 향슬춘, my NINE, Vitamin House, 게토레이, 카포상사(주), 조선대학교병원, 광주에디션, 사랑방, FRANK JUICE, 광주패밀리랜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CGV, VIPS, 윤암한방병원, 중흥오투스파, CMB광주방송, M5M

발행일 2015년 07월 10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풍암동) 광주광역시 체육회관 3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o)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